석굴암 원형 컴퓨터로 재현

윤장섭-재신 父子 '석불사' 펴내

일제때 보수로 달라져 건축학적 차원 재조명

◇윤장섭교수

◇윤재신고수

일제시대 보수 후 석굴암(석불사)의 모습이 원형과 상당부분 달라졌다는 분석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형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건축전문가 윤장섭(서울대 명예교수)·윤재신(이화여대)교수 부자가 함께 쓴 〈석불사〉(도서출판 학천 刊)는 석불사의 건축공간 구성과 불상조각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석불사 건축 원형의 재현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책의 백미는 역시 원형의 모습을 추정해 묘사한 제8장 '석불사 건축원형과 컴퓨터 모델링'. 남·북쪽 전실 및 주실의 단면 투시도에서는 팔부신중상 윗부분에 지금은 없는 첨차석(첨遮石·공포(공包)를 이루는 한 부분)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재현해 석불사의 원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석불사 창건과 중수, 수리공사, 건축공간계획, 건축구조 등 책 5장까지의 내용은 그동안 발표됐던 각종 논문 30여편을 토대로 내용을 보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단 감실이 공간의 띠를 형성하여 돔 천정이 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이나 단면분석도 등의 예시를 통한 건축공간의 시지각적(視知覺的)분석은 독특한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또 감잡이돌과 면석들로 구성된 윤환(Ring)구조가 아래로부터 차례로 쌓아 올려지며 중첩되어 돔구조의 천장을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담고 있다.

◇윤장섭 박사가 컴퓨터로 재현한 석굴암 북쪽 전실 투시도. 우측 팔부신중상 윗부분에 현재는 없는 첨차석을 재현해 놓았다.

윤장섭교수는 "석굴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석굴암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그 원형을 밝혀보고자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불국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2석굴암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조성에는 찬성하나 옛 원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스님의 맨발 | 한승원 지음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간 선승 25명

어린 상좌가 무거운 시주자루를 메고 걸어가고 있었다. 앞선 스님은 문득 어느 집에 들어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아낙에게 불쑥 입맞춤을 했고 동네사람들이 스님과 상좌를 붙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상좌는 혼겁을 한채 스님의 뒤를 따라 도망쳤다. 쫓아오는 동네사람들의 사정권을 벗어난 스님과 상좌의 대화. "아직도 무거우냐" "무거운지 어쩐지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2의원효'로 불리우는 경허스님과 그의 제자 만공스님의 대화속에 '일체유심조'(온갖 이치가 마음의 조화에 달려있다)의 교훈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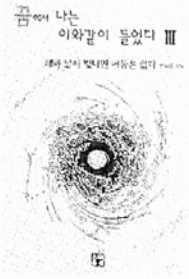
중진작가 한승원씨가 불교계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선승 스물다섯명의 기이한 행적과 사상을 유려한 필치로 풀어냈다.

현충일 전몰장병위령제에서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가리키며 설명하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불손하다고 호통을 쳤다는 동산스님 비롯해 휴정 원효 보우 만해 한영스님 등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일화들이 감동을 준다.〈문학동네 6천5백원〉

화제의 책

해와 달이 빛나면… | 성내경 지음

법화사상이 왜 불법의 최정상인가



이화여대 통계학과 성내경 교수의 〈꿈에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시리즈 3권으로 법화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권 〈꿈에서 나는 …〉에서 한국불교의 주된 수행방법인 참선에 대해 조명하고,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에서 미신과 사이비종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성교수는 이 책에서 법화사상이 왜 불법의 최정상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 수많은 불교서적과 스님들의 법문에서 그 해답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위해서라고 말해지고 있다. '일대사인연'은 중생에게 불지견(佛知見)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중생들을 불지견도(佛知見道)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일대사인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직 〈묘법연화경〉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묘법연화경〉만이 그같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중명 1만5천원〉

중학교 불교교과서 나왔다

불교교육연합회가 편찬한 중학교 종교(불교)교과서가 나왔다. 대원정사가 출간한 이 교과서는 서울시교육감인정 교과서로 전국 불교종립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에서도 종교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각 학년별로 편찬된 이 교과서는 올바른 종교관 확립과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불교의 특징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고려사찰 사회적 영향력 지대"

한기문교수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출간

고려시대 사찰은 그 시대의 대표적 종교시설이자 그 자체가 지닌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어느시대보다도 중요한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 그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제도적 운영이나 인적기반, 관리조직과 여러가지 특수기능 등 사원자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상주산업대 한기문교수가 펴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민족사 刊)은 제도적, 기능적 측면과 세속과의 관계 등 고려시대 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종합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1장 '사원의 창건과 중창'에서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다양한 신앙을 국가의 호국신앙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려초 태조시대의 정책을 비롯해 권위확보를 위해 창건된 문종대(文宗代)의 흥왕사, 지리적 여건과 결사사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공덕산 통백련사 등의 흐름을 통해 사원의 창건과 중창의 배경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정리하면서 고려왕조가 모든 사원을 비보사원(裨補寺院)으로 종합, 국가와 사원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원당(願堂)의 개념과 왕실, 관인층 원당의 형성과 그 기능 등 세속과의 관계를 살핀 제3장 '사원의 원당으로서의 기능'과 수계를 담당한 계단사원(戒壇寺院)과 세속의 신앙과 지원이 어떻게 사원보(寺院寶)를 통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가를 밝힌 4장 '사원의 특수한 기능'은 사원속에서 고려사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불교유적에 담긴 정신 찾아내야"

김찬일씨 '살아있는 유적…' 펴내

"불교유적은 있는 그대로의 형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산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여년간 문화유적답사에 심취해 온 김찬일씨(대구 경북중 교사). 그가 최근, 답사길에서 만난 문화유적과 사람들을 인연으로 한 답사기행집 '살아있는 유적, 숨쉬는 맥박'을 펴냈다.

불교 및 철학적 시각 속에서 문화유적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깨우친 김씨가 특히 관심있게 서술한 부분은 불교유적. 신라불교의 발상지 도리사를 비롯 난세의 구원성지 팔공산 약사대불, 한국 최초의 석굴사원 단석산 신선사 마애석굴, 가슬갑사터 등을 자연환경과 더불어 잔잔하면서도 정감어린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 또 답사길에 만난 훈훈하면서도 흉내나는 여러 군상의 인간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혼자 문화유적을 답사하다 보면 안노이는 것도 보이게 되고 안들리는 것도 들리게 된다"는 김찬일씨. 그는 "불교문화 속에 뿌리내린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의 의미와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파계사 영산율원 '사미율의주석찬요' 발간

파계사 영산율원(원장 철우)이 〈사미율의주석찬요〉를 펴냈다. 운서주굉스님이 모은 〈사미율의요략〉에 흥찬스님이 주석을 붙인 〈사미율의요략증주〉를 완역하여 기본으로 하고, 서옥스님의 〈사미율의요략술의〉와 광화 율사가 정리한 〈사미율의요략집주〉가운데 요긴한 것을 발췌해 엮었다.

사미십계의 내용을 담은 계율편과 '스님 공경하는 법'등 스물네가지 항목에 대한 위의편 각 주제에 대한 술의(述義·사미율의 해설)와 집주(集註·본문에 대한 주를 모아놓은 것)로 구성돼 있다. 율원장 철우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율원생들이 논강하면서 2년여 준비끝에 완성했다.

해·외·신·간

여성불자들의 여성성

〈여성불자들의 여성성〉은 美 여성불교계를 대표하는 30명의 스님·재가불자들이 '여성의 육체와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공동 집필해 삼발라 출판사가 내놓은 신작. "여성성(gender)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여성불자들에게 한계 상황일 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페마 쵸드론(감포선원장) 등의 필자들은 "모든 육체는 불성을 담고 있는 완전한 그릇"이라고 말한다. 〈256 pp. ISBN 1-57062-324-4〉

위대한 부처님 제자들

〈위대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직계 제자 25명의 초상. 사리불·아난다 등 10대 제자 뿐만 아니라 암바팔리(Ambapali)·마리카(Malika) 등 여성 제자 8명의 삶과 구도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1930년대부터 독일 불교계를 이끌었던 냐나포니카 마하테라스님(1901~1994)의 유고집(美 위즈덤 출판사 刊). 〈448 pp. ISBN 0-86171-128-9〉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2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3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 철	장 경 각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담
7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반출판사
9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10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음

구입문의:(02)737-0695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11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